

ECOVADIS 평가 더 현명하게 준비하기

이 자료는 2026년 5월 본사에서 발행한 「READINESS BEFORE RATINGS - A SMARTER APPROACH TO ECOVADIS」를 국내 이용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로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목차


- 01 EcoVadis 의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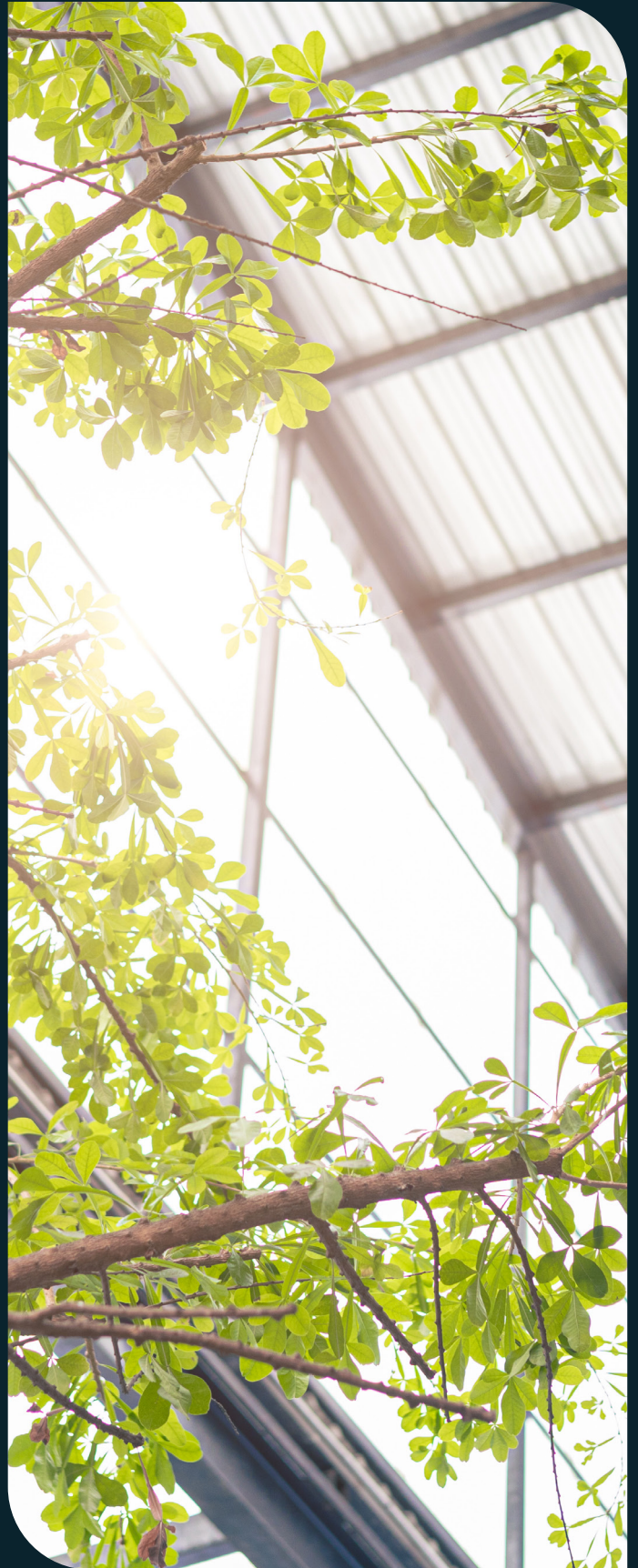
- 02 EcoVadis 핵심 평가 기준

- 04 평가대상 기업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 05 준비수준 점검 또는 갭 평가의 필요성

- 06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 로드맵

 Click section titles to navigate



ECOVADIS 의 영향력 확대

지난 10년 사이 EcoVadis는 전 세계 220여 개 산업과 180여 개국에서 15만 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할 만큼, 가장 널리 채택된 지속가능성 평가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사와 공급망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제 상당수 기업에게 EcoVadis 평가 대응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약 65%가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인식한 2025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시장 추세와 궤를 같이합니다. CDP와 Sphera, Sedex 등 여타 평가 기관도 여전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 문의에 대응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입증하는 표준 창구로는 EcoVadis가 가장 폭넓게 자리 잡았습니다.

EcoVadis 등급은 구매 의사결정에서부터 협력업체 자격 심사, 상시 공급업체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거래 관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 과정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기업을 직접 확인할 데이터나 검증 장치가 제한적일 때, 투자자와 거래 파트너가 이 등급을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숙도와 거버넌스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요 구매 기업의 약 92%가 공급업체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할 만큼 참여 저변이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EcoVadis는 더 이상 대형 다국적기업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은 물론 평가에 처음 응하는 기업까지도 거래의 기본 요건으로 평가를 요청받는 일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EcoVadis 점수가 시장에서 분명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도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mazon Business로, 판매자는 제품 페이지에 EcoVadis 메달이나 배지를 노출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알리고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구매자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이 정작 지속가능성 프로세스나 문서, 데이터 체계가 정비되기도 전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촉박한 일정 안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면서, 기업은 기존에 수행해 온 활동을 갈수록 정교해지는 외부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의 응답으로 전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COVDIS 핵심 평가 기준

EcoVadis 평가는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자사 사업은 물론 가치사슬 전반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폭넓게 진단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기업 규모와 산업, 지역,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바탕에 깔린 평가 논리만큼은 일관됩니다. 어떤 약속(commitment)을 했는지뿐 아니라,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함께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EcoVadis는 정책과 활동, 보고 관행이 조직 전반에 얼마나 고르게 정착되었는지, 즉 적용 범위(coverage)를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설문문의 '일반(General)' 항목은 이러한 평가의 맥락 정보를 담는 부분으로, 기업의 현황과 거버넌스 구조,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방향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21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환경 (ENVIRONMENT)	 노동 및 인권 (LABOR & HUMAN RIGHTS)	 윤리 (ETHICS)	 지속가능한 조달 (SUSTAINABLE PROCUREMENT)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GHG) - 수자원 - 생물다양성 - 대기오염 - 원자재·화학물질·폐기물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사용 - 제품 폐기 - 고객 건강 및 안전 - 환경 서비스 및 옹호활동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건강 및 안전 - 근로 조건 - 노사 대화 - 경력 관리 및 교육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강제노동·인신매매 - 차별 및 괴롭힘 -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 반경쟁 행위* - 책임 있는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환경 관행 - 공급업체 사회 관행



* 반경쟁 행위 기준은 설문에서 삭제되었지만, 360° Watch 지표에서는 여전히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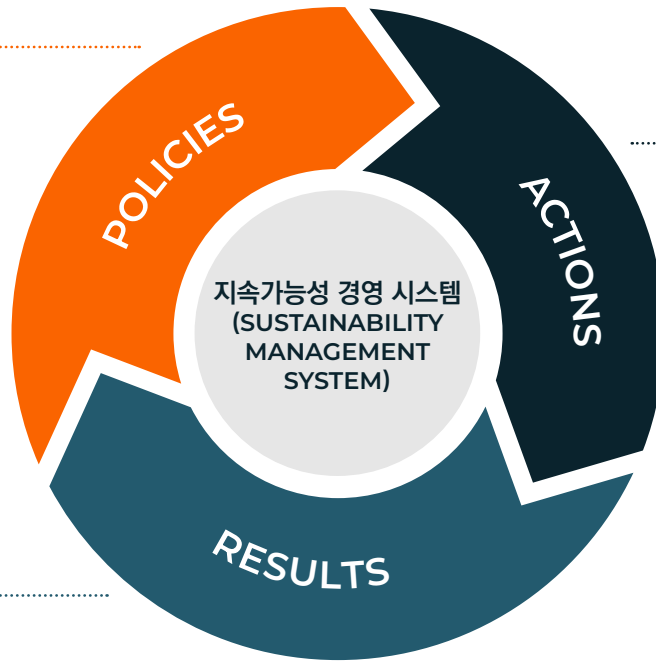
정책 (POLICIES)

정책 (Policies):

정책, 목표, 세부 목표, 거버넌스

지지 표명(Endorsements):

외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원칙에 대한 지지 표명
(예: UN Global Compact)



활동 (ACTIONS)

조치(Measures):

실제로 시행한 조치 (예: 절차, 교육, 장비)

인증(Certifications):

인증, 라벨, 제3자 감사

적용 범위(Coverage):

인증이나 조치가 회사 전반에 적용된 정도

성과 (RESULTS)

보고(Reporting):

지표가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며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이때 지표는 평가 대상 기업의 범위에 들어맞고 모든 사업장을 아우르면서, 최근 2년 이내의 자료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예: 최근 2개 역년간 총 에너지 소비량(kWh) 지표).

360° Watch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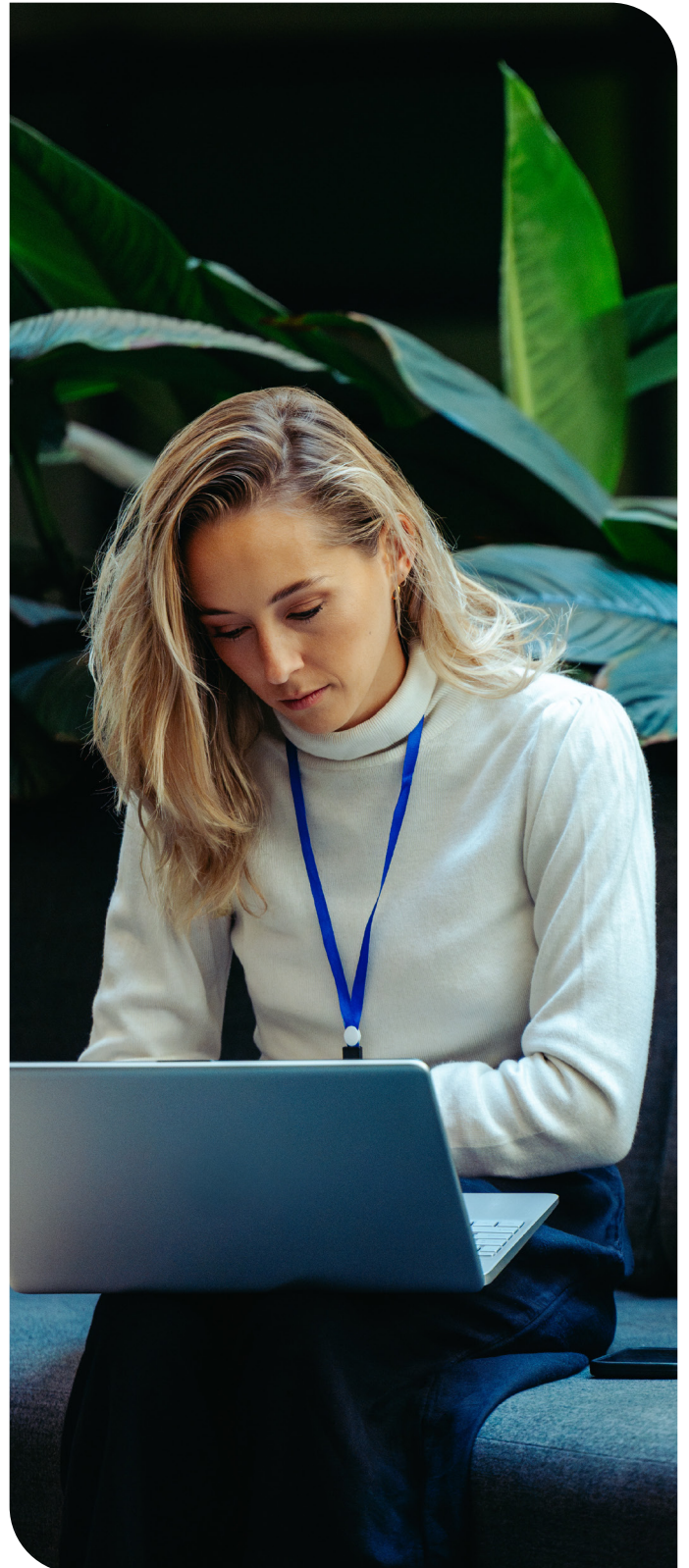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의 시각 (예: 행정·사법 당국, 노동조합, NGO)



평가대상 기업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소달리앤코는 처음으로 평가를 준비하는 다수의 기업과 협업하면서, 산업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첫 응답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앙화된 문서 관리의 부재:** 정책과 절차, 기록이 부서별·사업장별로 분산되어 있어, 막상 평가가 시작되면 완결성 있고 일관된 문서 일체를 신속히 취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직이 크고 복잡할수록 기존 문서가 평가 대상 범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 2. 비공식적인 지속가능성 관행:** 직원 교육이나 윤리 점검, 환경 활동, 공급업체 검토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식 정책이나 표준 절차로 일관되게 문서화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명문화된 체계도, 명확한 담당 주체도 갖춰지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을 평가용 응답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결국 일회성·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치게 됩니다.
- 3. 데이터의 정리와 가용성:** 협력업체에 대한 기대 수준은 마련해 두었더라도, 계약 조항이나 모니터링 장치, 후속 조치와 같이 공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음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으며, 1차(tier-one) 거래 관계를 벗어난 영역일수록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지속가능성 핵심성과지표(KPI)나 교육 참여 현황조차 일관되게 기록하지 못해 시간 경과에 따른 성과 개선을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평가가 요구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4. 변화 관리:**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상이한 탓에, 사내 이해관계자들이 EcoVadis 응답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문가(SME)와 원활히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안내, 지원의 규모를 기업이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5. 촉박한 일정:** 다수의 기업이 설문이 개시된 뒤에야 뒤늦게 자료 수집에 착수하는 탓에, 내부 일정은 촉박해지고 업무 우선순위가 충돌합니다. EcoVadis는 설문 개시 후 30 영업일, 연장 신청 시 추가로 30일을 부여하지만, 새로운 자료를 마련하고 사내 승인까지 확보하기에 60 영업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간적 압박이 가중되면 미흡한 부분을 면밀히 진단하거나 누락된 문서를 보완할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평가가 전략적 기회라기보다 부담스러운 과제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준비수준 점검 또는 갭 평가의 필요성

EcoVadis에 대한 요구가 거래 및 공급망 전반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공식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자사의 준비 상태부터 점검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준비수준 점검 또는 갭 평가는 기존 정책과 프로세스, 데이터를 EcoVadis 기준에 비추어 진단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현재 관행이 어디까지 기준에 부합하며 어느 부분을 추가로 보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EcoVadis가 요구하는 기본 정책과 문서,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 준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EcoVadis 설문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때 효과가 한층 큰데, 완료된 설문에는 채점 논리와 증빙 요건, 주제별 기준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종료되면 기업은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도구를 활용하여 확인된 공백을 보완하고, 특히 거래 파트너가 요청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서 다음 평가 주기를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준비수준 점검은 공개된 EcoVadis 방법론과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자료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으나, 이전 평가에서 확보한 정보를 더할수록 훨씬 정밀하고 정확하며 즉시 실행 가능한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점수표(스코어카드)가 산출되는 즉시 착수하면 다음 제출 시점까지 수개월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문서를 정비하며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급한 공백부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많은 기업이 되풀이하는 막판 임기응변식 대응을 줄이고, 부서 전반이 한층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즉시 해소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백은 기존 관행을 공식화하거나 분산된 문서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신속히 해소되지만, 거버넌스 체계나 데이터 추적 시스템, 공급업체 관리 장치를 새로 구축하는 일처럼 보다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영역과 자원 배분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준비수준 점검은 평가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숙도를 폭넓게 진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사회·윤리 관행이 사업 전반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ESG 보고와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EcoVadis 평가 준비는 일회성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내 지속가능성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더 큰 노력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 로드맵



EcoVadis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진행 효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큰 틀의 준비 로드맵을 마련해 두면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설정하기가 한층 수월해지며, 평가가 처음인 기업이라면 EcoVadis가 공개한 방법론 자료를 참고하여 설문이 주로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하는지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보유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과 절차, 데이터 출처를 식별하는 데서 출발하여, 이들이 EcoVadis의 네 가지 주제 및 관리 지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내에서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어 분산된 문서를 한곳에 통합하고 주제별 담당 주체를 지정한 뒤, 설문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로 마련하거나 공식화해야 할 부분까지 점검해 두면 이후 과정이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준비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대개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주로 참여하는 부서와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업체 관련 이슈를 담당하는 구매팀
- 노동과 교육 관행을 담당하는 인사팀
- 윤리와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 또는 법무팀
- 환경과 사업장 데이터를 담당하는 환경·보건·안전(EHS) 또는 운영·시설팀
- 전체 답변을 총괄하는 지속가능성 또는 ESG 담당자

여기에 더해 법무팀과 조기에 협업하여 전체 응답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관련 부서를 초기부터 참여시켜야 이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흔한 실수	사전 대비 방안
뒷받침할 문서 없이, 기록되지 않은 관행에만 의존함	중대 주제(material topics)에 관한 정책을 마련
공급업체 관련 증거 요구 수준을 과소평가함	책임 있는 조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정책과 행동강령, 실사 (due diligence) 문서를 갖춤
교육이나 KPI 추적 기록을 소홀히 함	이행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 KPI 모니터링 기록을 유지
한 팀이 전 과정을 혼자 떠안을 수 있다고 가정함	담당과 지원 체계를 분명히 함
평가 답변에 바로 쓸 수 있는 주요 지표와 보고 수치가 있는데도, 기존 지속가능성 보고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보고 준비 계획을 세움
변화 관리와 내부 공감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함	주제별 사내 전문가(SME)를 초기에 참여시켜 적시 지원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마감일을 정함

EcoVadis가 CDP 공시나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 점차 강화되는 규제 요건 등 여타 지속가능성 과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간과하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거나 지속가능성 활동을 실질적인 사업 가치로 연결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면 상호 보완 효과를 내며 내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데이터 거버넌스가 강화되며, 고객의 기대와 새롭게 부상하는 규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수준 점검 또는 갭 평가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 근간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리, 문서화 관행을 견고히 다져 두면, 기업은 EcoVadis와 CDP, 연례 지속가능성 공시는 물론 향후 도입될 규제 영역에 이르기까지 보고하는 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검증 기준이 엄격해지고 검증 가능한 ESG 근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체계적 지원은 평가 요건을 견고한 내부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보고의 비효율을 줄이며, 나아가 지속가능성 노력이 구매 관계와 리스크 관리, 장기적 운영 회복력까지 뒷받침하도록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Sodali & Co는 다양한 산업과 지속가능성 성숙도 단계에 걸쳐 기업을 지원해 온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맞춤형 평가대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우선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응답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당사가 지향하는 바는, 기업이 설문에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당장의 공시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장기적인 사업 회복력과 이해관계자 신뢰의 근간이 되는 거버넌스와 데이터 인프라, 운영 관행까지 함께 강화하는 통합 지속가능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정성엽

한국 대표

stanley.chung@sodali.com
010-8170-1000



EMILY WEI

Managing Director,
지속가능성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emily.wei@sodali.com



MARIATU SANTIAGO

Manager,
지속가능성 부문

mariatu.santiago@sodali.com



ADRIENNE SHOOK

Manager,
지속가능성 부문

adrienne.shook@sodali.com

SODALI & CO 소개

Sodali & Co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환경을 헤쳐 나가는 전 세계 기업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경영진이 현안을 사전에 예측하고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며, 한층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조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과를 제고하도록 지원합니다.

Sodali & Co는 글로벌 규모와 400명이 넘는 임직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세 사업 영역(주주 자문, 지속가능성, 전략 커뮤니케이션)에 걸쳐 2,000곳이 넘는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자문(Shareholder Advisory):** 의결권 위임 권유(proxy solicitation), 자본시장 인텔리전스, M&A 자문, 기업 거버넌스, 펀드 솔루션, 글로벌 채무 및 채권자 솔루션을 다룹니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자문과 기후 자문을 다룹니다.
-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s):** 기업 커뮤니케이션, 위기 및 특수상황 대응, 재무·거래 커뮤니케이션, 투자자 관계(IR), 공공 정책 및 캠페인, 리서치, 브랜드 디자인을 다룹니다.

2,000+

전 세계 고객

50+

년 이상의 경험

70

개국

본사

뉴욕 (NEW YORK)

43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1 212 300 2470

런던 (LONDON)

122 Leadenhall St
City of London, EC3V 4AB
United Kingdom
+44 207 100 6451

시드니 (SYDNEY)

Level 9, 9 Castlereagh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61 2 9066 4040

